광주일보 제2기 독자위원회 6차 회의

광주일보 제 2기 독자위원회 6차 회의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 동구 금남로2가 광주일보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11명 중 8명이, 본사에서는 조경완 편집국 부국장이 참석했다.

1시간 30분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3개월 동안의 본보 지면을 꼼꼼히 분석, 비판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또 광주일보 모그룹 인 대주그룹의 탈세사건과 관련, 광주일보가 균형잡힌 보도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소외계층 문제 더 다루고 희망주는 기사 많아졌으면

▲김경태(광주은행 홍보팀장)=2012 여수 세계 박람회 유치에 성공한 뒤 지난달 28일부터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로 이끌자' 라는 제목으로 실리고 있는 기획기사의 경우 시기도 적절했고 그 내용도 알찼다. 이날 경제면에는 'SOC 특수'…건설·부동산 경기 활력 기대' 라는 기사도 다뤄졌는데, 시민·정부·지자체 등으로 주체를 구분해 여수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역할을 다뤄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여수엑스포' 기획 기사 내용 알차 대선보도 7가지 약속 꼭 지키도록"

▲서기준(조선대 정외과 교수)=중앙지를 따라해서는 안된다. 지방지로서의 독창성과 특색을 가꿔야 한다. 지난 11월 1일자 7면 '폐기물 2만t 영산강변 불법 매립'이라는 고발 기사와 11월 6일자 2면 '지방의원들 이러면서도 '의정비 타령?' 기사는 좋았다. 그러나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지난 11월13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는데 관련 기사는 크게 다뤄지지 않은 것 같다. 어느 의원들이 열심히 자료를 분석해 심도있게 감사를 진행했는지, 집행부의 행정 처리가 잘못됐거나 소홀했던 점은 없었는지 등을 분석해 자세히 다뤄줘야 했는데 아쉽다.

▲김재곤(서정치과 원장)=제목에서부터 오자가 나오면 되겠는가. 지난 11월28일자 7면 '여수서 밤샘…도라선역서 "평화"'라는 기사의 경우 '도라산역'을 '도라선역'으로 잘못 썼다. 독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

지난 1993년 치러진 대전엑스포의 경우 엑스포가 치러진 뒤 몇 년이 지나 엑스포 시설이 찾는 이들이 없어 흉물로 전락하다시피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여수세계박람회도 이같은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당장 급하다고 숙박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강하는 것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엑스포 유치 뒤에도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함께 구상해야 한다. J 프로젝트와 연계한 활용 방안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야 흉물로 전락하지 않고 '엑스포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

기존 엑스포를 유치했던 국내 도시, 해외 여러 국가들을 찾아 비교해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올해 게재된 '온누리안 리포트' 기획물처럼 내년에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 복지시설 및 차상위 계층 등 소외 계층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줘야 한다.

▲최희동(전남대 총동창회 사무총장)=모그룹인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불구속 기소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일보가 과연 광주시와·전남도 등 행정 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비판 기사를 쓸 수 있겠냐'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목포·무안·신안 등 전남 서남권 개발을 위한 '서남권 특별법'은 국회에서 정당간 줄다리기와 의원들의 지역 이기주의 에 휘말리면서 기형적으로 처리됐다. 행정 기관과 정부 등 누구의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어디에서부터 틀어진 것인지 명백히 따지는 것을 지역 언론이 해야 한다.

▲이영선(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부회장)=광주전남 민언련이 최근 성명서를 냈다. '낯 부끄러운 그룹 회장 구하기에 분노한다 '는 내용인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지난 11월19일자에는 1면 '대주그룹 회장 영장 청구…지역경제 충격''대형프로젝트 무산 위기'라는 기사를 비롯, 3면 '지역경제 미증유 파장 우려', 19면 '대주그룹 문제 지역경제 파장 고려해야'라는 사설까지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특히 지역 경제만 거론하고 조세 포탈 및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언론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좀 더 객관적으로 정리했어야 한다. 이같은 논리라면 삼성 문제는 어떤가. 국내 경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방향으로만 다룰 것인가. 대주그룹이 모그룹이라는 점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심하게 편파적이다.

> "'대주 문제' 지역경제 파장에 치중 대표언론답게 균형있게 다뤘어야"

▲진원장(조선대 미술대 학장)=어두운 기사가 너무 많다. 기억에 남는 희망을 주는 기사가 많아졌으면 한다. 또 편집이 아쉽다. 그림으로 보여지는 것이 글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묘숙(주부·광주비엔날레 도슨트)=지난 10월 10일부터 '중외공원 시대 여는 광주시립미술관'이라는 제목으로 세차례 게재된 기획시리즈는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의 발전 방향을 담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광주일보 제 2기 독자위원회 6차 회의가 지난달 30일 오전 본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석한 독자위원들이 지난 3개월간 광주일보 보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또 지난 11월20일자 '광주시립미술관 작품 구입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기사를 통해 '지역작품 수장고'라는 지적을 하거나 지난 10월 29일자 '최근 개관한 새 광주시립미술관, 관람 환경 '낙제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 미술관 문제점을 꼬집었는데 대안까지 제시했으면 한다. 격차가 있는 세계 유명 미술관까지 갈 필요도 없다. 수도권 지역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사설 갤러리를 찾아 다니며 그들의 운영 방식 등을 보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

▲문병훈(지역언론개혁연대 대표)=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사전구속 영장 신청과 관련, 지난 11월 19일자 게재된 '대형프로젝트 무산 위기'라는 기사의 경우 허황된 얘기만은 아니다. 일리가 있다. 시장·도지사가 바뀌어서 선처를 호소한 것은 아니다. 시민단체도 지역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알고 있다.

문제는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최소한 언급을 하고 넘어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민들과 독자가 모르겠는가. 독자와 시민들을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라. 1면, 3면, 사설까지 지역 경제를 걱정하는 기사로 채워놓으면 압력을 넣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밖에 없다.

> "지역 무명작가 소개 인색해선 안돼 시립미술관 문제점 외 대안 제시를"

모그룹이라는 점에서 작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 이해한다. 다만 세련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역의 대표적인 언론이라면 최소한의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한다.

▲김경태=독자가 읽는 방향에서 신문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익한 정보가 실려야 한다. 연합뉴스를 그대로 싣는 것이 아니라 광주·전남 지역 상황에 맞게 재해석해 내놓을 줄 알아야 한다. 퍼펙트 논술의 경우 좋은 답안 외에 잘못된 답안도 함께 제시해주는 것이 아이들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서기준=지난 11월30일자 2면 '수직이륙 수평 비행 '스마트 무인기''라는 기사가 게재됐다. 지역에서 이처럼 의미있는 시험이 이뤄졌는데 너무 적게 다룬 것 같다. 시험평가 담당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

또 장성·해남·장흥 군수에 대한 보궐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들에 대한 프로필, 공약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일목 요연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김재곤=지난 11월13일자 1면 '대주그룹 임직원 일동 명의로 지역민께 드리는 자성의 말씀'이라는 광고가 실렸다.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에는 건물을 지어주거나 수백억원을 기부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역 언론사를 만들고 키우는 것도 지역민들에게 봉사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광주일보가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계열 골프장이 있는데 이곳과 연계, 여기에서 나온 수익을 바탕으로, 다른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눈치를 보지않고 제대로 기사를 쓰고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광주일보측 부채를 허 회장이 부담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희동=지역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광주일보 경제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 경제 생활에 종사하는 시민들에게는 최근 위기가 피부에 와 닿는다. 심층적으로 다뤄줘야 한다. 또 최근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 선출과 관련, 뒷얘기가 무성하다. 왜 여지껏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는지 분석해서 조목조목 짚어줘야 한다. 경종을 울려주라는 말이다.

▲이영선=사교육에 대한 학부모들, 특히 엄마들의 고민이 많다. 광주·전남 지역 대학 중 논술을 치르는 대학이 몇 개나 되는가. 서울 유명 대학에서 치러지는 논술 시험 때문에 초등학생들까지 논술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근본적 입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고쳐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진원장=여수 엑스포가 유치된 뒤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이 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발생한 랜드마크 문제가 또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다를 중심으로 한 상징적 조형물은 충분하고 아름다운 랜드마크적 역할을 한다. 공모 절차, 심사위원 선정 등에서도 세심하게 고민해야 한다. 아시아 문화전당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이묘숙=지역 무명 작가들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 인색해서는 안된다. 보도자료를 들고 찾아오는 작가가 아닌 기자가 직접 화랑가를 돌며 유능한 작가를 발굴,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었으면 한다. 경제면의 경우 일반인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그래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재테크 기사가 많이 실린다. 중앙지나 경제지만큼 할 수 없지만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사를 발굴, 써줬으면 한다.

▲문병훈=지난 11월26일 '대선보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7가지 약속을 했다. 꼭 지켜졌으면 한다.

/정리=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일가공인중개사
☎(代)234-8216 핸 011-609-0896
(광주우체국부근)

상가건물 매매
·충장로 대지 75평 5층건물 29억/1,700만 21억
·금남로 문화전당옆 대로변 5층 1억5천/900만 20억
·전대후문 대로변 75평 3층 8천만/800만 16억
·학동 15m×15m코너 대지 50평 5층 2천5백/270만 3억
·황금동 럼러약국근처 89평 2억/900만 20억
·광산구 구 도청옆 112평 단층건물 10억
·조대 대로변 대지 226평 단층 평당350만원
·금호동 풍원아파트옆 대로접 330평 단층 당400만

토지매매
·운림동 신리예식장앞 대로접 480평 당 200만(전체전용원)
·주월동 잠미아파트앞 대200평 당250만
·광·송간 공항전철역 옆 대로접 1,400평 당100만
·봉선동 25m 도로접 700평 당 300만
·금호동 아파트 밀집지역 인근800평 당200만
·운남동 삼성아파트 후문앞 코너 192평 당200만
·문흥동 개발제한구역 임야 1만평 당1만6천
·도천동 60m 도로개설중 옆 자연녹지 5천평, 2천평, 당65만
·선암동 호대옆 대로변 1,300평 당150만
·선암동 호대옆 1,000평 당90만
·지산동 녹지 1,100평 당 35만
·선교동 임야 4만원 당3만
·광산구 덕림동 관리지역 3,200평 당6만
·화순 도곡 임야(야산)3만평 당1만
·화순 도곡 관리지역 3천평 당6만
·화순 도곡은천 인근 관리지역 2만평 당10만
·화순 남면 계곡접 관리지역 6만평 당1만원
·담양읍 임야(묘접적합)2,700평 당6만

전원주택
·운림동 성촌부락 대지 160평 당130만
·운림동 녹지 340평 당90만
·운림동 대지 280평 당50만
·화순 남면 한옥 대지 200평 4,000만
·화순 남면 대지, 전 한옥750평 1억
·담양 창평 소재지 대지 700평 당30만

기타부동산
·화순 한천 급천저수지 위쪽 임야 6만6천평 당7천원
·화순 계곡접 임야 14만평 당4천원(임도개설, 가로수식재)
·화순 남면 계곡접 주택1등 3천평 당3만
·화순 남면 임야 3만평 당 5천원
·장흥 회진 바닷가접 횡토주택 4천평 당10만
※광주인근 관리지역 임야, 전, 답 구함
※횡토주택 등호인을 모십니다

현대공인중개사
☎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 9.co.kr)

전원주택용지 24필지 선착순 분양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단체 분양 환영)
◉위 치 : 담양군 용면 추성리 산28번지 일대
◉분양면적 : 205평서 414평까지
◉분 양 가 : 상담 후 결정
◉본택지의 특성◉
1. 접근성이 용이함 - 등광주IC에서 30분거리
2. 정남향으로 단지를 배치하여 조망 및 일조권 확보
3. 주변의 레저 및 관광명소등이 근거리에 위치 (추월산, 담양리조트, 죽녹원, 담양호, 가마골 생태공원 등)
4. 투자가치가 높음

◀ 급히 구 합니다 ▶
◉그린벨트 농지 3,000평 구함
서구 남구 경지정리된 농지(대토용)
◉광산구 우산동 농지 구함-비행장 맞은편(약2,000평)
◉관리지역 토지 구함
(광산구 삼도동 본량동 관내농지 평수에 관계 없슴)
◉묘지구함 : 1,000평 이상
(함평나산 / 나주노안 봉황 금천 다도 / 장성)

저희 업소는 20년 가까운 중개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토지의 매매를 전문적으로 중개 합니다.
부동산 관련 작종의 전문가와 입지선정에서 준공까지 원스톱으로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병원, 공장, 원룸, 식당, 모텔, 차고지, 전원주택
주유소및가스충전소 부지, 투자용토지, 상가건물

국민공인중개사
핸 011-635-7939, 010-3114-6103
(두암동 무등도서관사거리 농협맞은편 2층)

건 물
◉주월동 5억 병원의원매매
대66P 건150P 지상4층 즉시 입주가능
◉7억9천 빌딩 급매
호남대 부근 광산구 서봉동 대270P 건287P 보1억9천 월450만원
◉13억9천 빌딩 20×10m코너
전대 후문 대110P 건320P 보3억3천 월900만
◉12억점포 8칸 빌딩부지 30×6m코너
보증금 1억 월550만원 포함
◉13억고시원
대110P 건300P 룸60개 월세1,500만원
◉상업지역 13억 빌딩
대140P, 건510P 보증금 2억 월세850만원
◉17억5천 1층 점포 12칸 병원부지
보증금 1억5천 월750만원포함 아파트 7,000세대 상권
◉26억 상업지역 빌딩
대185P 건890P 보증금 5억 월1800만원
◉41억 상업지역 빌딩
대200P 건1,100P 보12억 월세2,000만원
◉47억 빌딩
대600P 건1000P 보10억 월세3000만원 옹지20억 포함
◉120억 공장부지
공업지역 12,000P 현재 공장 운영중

주유소 전문중개
◉9억 주유소 급매
대300P 35m도로변
◉11억5천 시외 주유소
기사식당 카센타 포함 2000P 장사잘됨
◉13억5천 시내 주유소 급매
대400P 일매출 800만-900만원

병원부지 전문중개
◉360P P당 750만원
◉210P P당 900만원
◉550P P당 650만원

땅
◉정비 공장부지 600P
상업지역 35m 도로접 P당 270만원
◉수완지구 상업지역
240P P당650만 대로변
◉쌍암동 310P 상업지역
20m도로접 P당390만원
◉골프연습장 부지 8,000P
자연녹지 북구 P당 50만원
◉제1종주거지역 1,000P
P당100만원 20m도로접
◉담양 임야 15만P P당 1만원
◉관리지역 임야 7000P
담양 P당3만7천원 전입로 있음 경사도 15°
◉오피스텔부지 300P
전대후문에서 6~7분 도보 P당175만원
◉과수원 묘지가능 그린벨트 임야
1,800P 남함 경사도 15도미만 진입로 있음
삼성휴플러스에서 10분거리 P당4만원
◉동림동 생산녹지 800P 대폭8억
◉담양 임야 25만P P당 3,000원
◉담양 관리지역 2000P
2차선 도로접 임야 P당 9만원
◉광산구 상가동 관리지역 2000P P당 10만원
◉태양광발전소 부지 10억
보성 회천 25,000P 남향
◉대덕면 7,000P 3억7천 고속도로주변
◉골프연습장부지 3,000P
P당 120만원 30m 도로접
◉암자부지 2,700P P당 7만원
◉전원주택 화순읍 수만리 1,000P
3~4세 가능 P당 50만원
◉화순읍 연수원부지(장뇌삼재배중)
13만평 38억

공장 급매
각화동에서 10분 6억7천
대지1,400P 건물 500P

APT1800세대 마트겸 목욕탕
대120P 건270P 현재 주인직영중 매12억

급매 시외땅 180만P
·P당 4만원 목장용지 및 잡종지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투자의 길을 아는 사람들 ☎(代) 525-0021, 친절상담 011-612-3421

경매 투자자 투자상담 환영!!
법원경매·공매에 투자하여 부동산 절반값에 산다~!!
1. 운천저수지 신축8층건물 긴급매매
대지:243평 건물:지상6층[신축건물] 병원,대형식당,노래방,카페,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건물임. 토지 바로 옆에 주변 아파트개발로 인하여 지가가 매우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며 운천저수지 개발등으로 투자가치가 급상승할 곳이 틀림없는 곳임
감정원 감정가격:19억원
긴급매매가:14억원
2. 월산동 [구,남강호텔] 긴급 매각
대지:90평 건물:지하1층[유흥노래룸] 지상 8층:현, 모텔로 이용중임
월산동로터리 농협 바로뒷편~잠봉터널간 도로변소재
사무실, 병원, 모텔, 임대용건물로 건물 리모델링 활용가능한 지역임
감정원 감정가 12억원
긴급매매가 8억5천만
임대가격 : 최신시설로 리모델링 공사 후 모텔로 임대가능

현금투자 최요지
1. 창평 유촌리 임야 4만평 골프장, 무인모텔, 펜션, 수련원 가능 토지 매매가 평당 3만원
2. 특포 신화항 인근토지 약 3천평 긴급매매가 평당 20만원
바다가 보이는 간척지용 토지임
3. 전원주택 신축부지 송정리 등곡가는 길 주거지역 480평 매매가 평당 30만원 전망좋은 토지 즉시 건물 신축가능

AAA급 깨끗한 건물 긴급 매각
1. 북동 롯데백화점건너편 도로변 대지50평 2층건물 매매가 2억5천 (은행대출 2억안고 매매가능)
2. 광암교4거리 주유소옆 건물5층 대지71평 임대용건물 회사사옥 사무실용도 적합. 동림2지구 개발 완료시 발전가능성이 높은지역 매매가 5억3천(주인사정상 긴급매매
3. 농성동 상무회의소 건너편 리모델링 완료된 4층건물 대지 150평 감정가 18억 긴급매매가 12억 임대 잘나가는 건물임

현금투자 최요지 긴급매매
1. 전대후문 도로변 건물6층 매각 전대후문 나약국 도로변 대지80평 건물 지하1층 문구점, PC방, 당구장, 사무실 등으로 이용중임 임대가 보장되는 건물임
2.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상업지역 980평 긴급매매가 평당 400만원 오피스텔, 주상복합, 주차장용지 적합
3. 교회, 신축건물 부지 남구 진월동 광주대 입구 대지230평 매매가 평당 250만원 (주인 사정상 긴급매매)

2006년도 광주 남구지역 예식장 선호도!!(극장식 웨딩홀) 만족도!!(음식이 맛있기로 소문난) 1위업체선정!!
이젠 극장식 웨딩홀에서 결혼하자!!
센트럴시티웨딩컨벤션
10,11,12월 예식, 송년모임 예약접수중
•결혼, 회갑연, 칠순연, 돌잔치, 동창회모임, 각종 행사를 호텔부페식으로...
☎675-8500
(광주대학교 입구)